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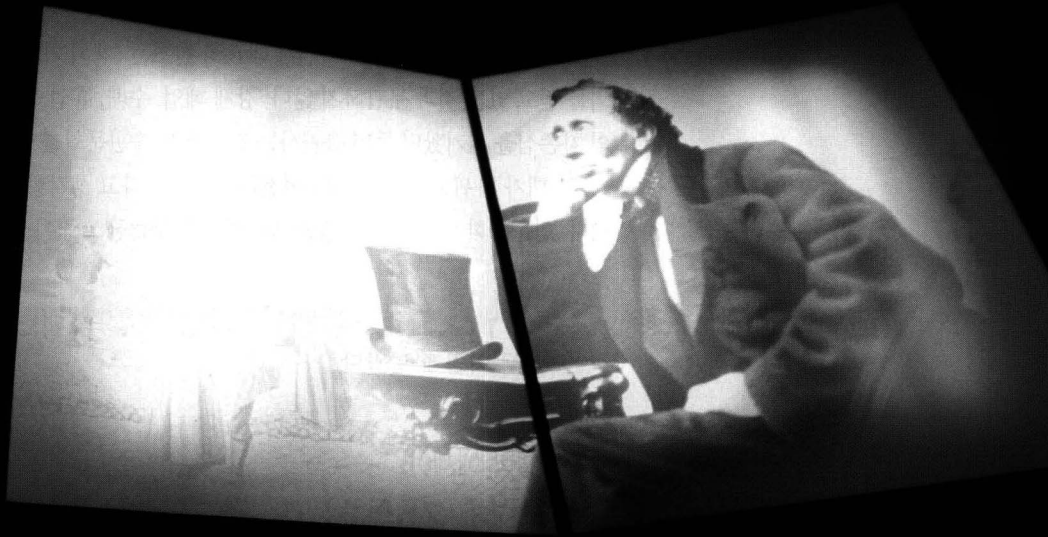
‘상상공간, 안데르센의 삶과 놀라운 이야기’展

인간 안데르센의 삶과 동화, 그 판타지의 세계로!

“와, 트렁크가 열렸다. 여기는 어디지?
프랑스인가?”

히얀색 여행용 트렁크 안을 들여다보는
아이들 눈이 반짝거린다. 아이들의 손
을 잡고 있던 엄마는 참지 못하고 “어
디, 어디?” 하며 아이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트렁크 쪽으로 허리를 굽힌다.

글_이주연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안데르센 탄생 200주년 맞아 아시아 최초 전시회

‘상상공간, 안데르센의 삶과 놀라운 이야기’展(이하 안데르센전)이
열리고 있는 전시회장 안. 안데르센의 삶을 여섯 단계로 나눠 시기별로
가장 잘 맞는 동화 2편과 그에 해당하는 유품 그리고 체험공간을 배치했
는데, 세 번째 단계인 ‘하늘을 나는 트렁크’ 관의 풍경이다. 전시관 입구
에서 나누어주는 책자에 도장을 찍으면 각각 도장에 맞는 트렁크가 열
리며 안데르센이 젊은 시절 여행했던 여러 나라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지난 6월 말부터 코엑스 장보고 홀에서 시작된 안데르센전은 안데르
센 탄생 200주년을 맞아 그의 모국인 덴마크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획·
후원하고 있는 전시회로, 덴마크와 영국 에든버러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열리는 전시회
다. 덴마크에서는 국보
로 취급되는 오덴세 박
물관과 왕실 도서관의
안데르센 유품들이 선
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는 ‘어린

이 전시회’ 하면 떠오르는 가벼운 볼거리, 놀거리 위주의 기존 전시 개념
의 외연을 확장한 복합 문화 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데르센의 삶
과 동화라는 판타지를 통해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그의
유품과 첨단 제품을 적절히 배치했다.

안데르센전의 설계를 맡은 랄프 아펠바움은 미국의 ‘자연사 박물관’
‘빌 클린턴 대통령 기념 도서관’ 등을 설계한 세계적 디자이너다. 그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안데르센의 생애를 영상물로 소개하는 ‘하늘을 나
는 책’ (Flying Book)이나 안데르센의 실크 모자와 우산을 아크릴로 형상
화해 오디오 장치로 활용한 ‘소리 나는 모자’ (Audio Hats), ‘이야기 상
자’ (Story Alcove) 등을 설치해 흥미와 교육성을 고루 갖춘 전시 공간을
창조했다.

안데르센, 불우함 극복한 ‘미운 오리새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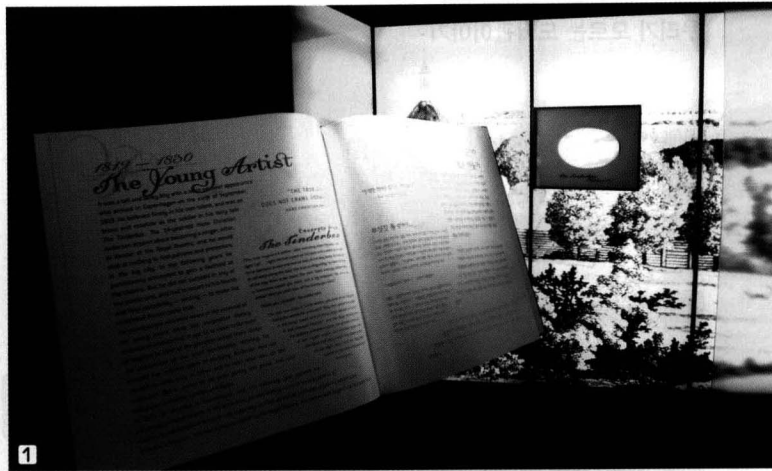
관람객들은 전시장 입구에서 18페이지짜리 빈 책자를 받고, 여섯 단
계로 나누어진 안데르센의 생애와 그에 부합하는 동화와 전시물을 관람
하면 그 결과물이 자신만의 책으로 만들어 지게 된다. 특히 특수 제작한
기계를 통해 ‘종이 오리기’ (Paper Cutting) 작품을 만들어 보는 네 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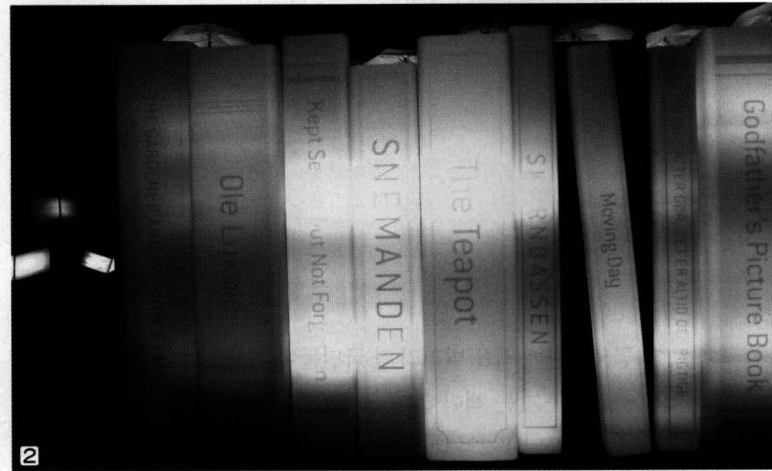
안데르센의 ‘Paper cutting’ 작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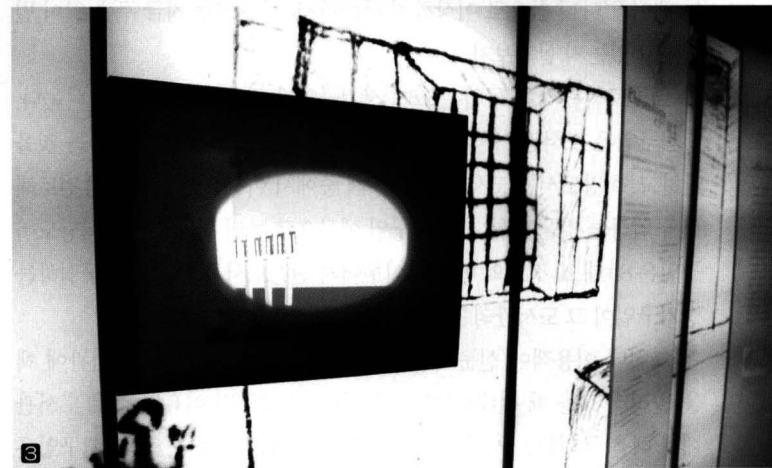
한 어린이가 'Paper cutting' 기계에 책자를 넣어보고 있다.



1



2



3

- 1 각 관의 입구에는 안데르센의 생애를 시기별로 설명한 조형물을 설치했다.
- 2 안데르센의 대표작을 알수있는 대형 조형물.
- 3 안데르센이 젊은 시절 여행했던 국가와 도시가 그의 작품과 함께 설명되어 있다.

‘그림자’ 관은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인기를 끌었다. 안데르센이 동화 못지않은 수준 높은 종이 오리기 작품들을 남겼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라고 한다.

아이보다 자신이 더 관심이 있어 전시장을 찾게 되었다는 주부 김주선 씨는 “안데르센의 동화를 읽고 자란 내가 아이와 함께 이런 전시를 보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안데르센의 생애를 시기별로 나누어 동화와 함께 이해하기 쉽게 꾸민 덕분에 아이에게 별 다른 설명을 해 줄 필요 없이 같이 감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동화책을 형상화한 전시 케이스와 광섬유를 활용해 캐릭터를 형상화한 심볼 등은 전시공간에 머무르는 동안 마치 동화의 세계 속에서 와 있는 듯한 환상적인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꾸몄다. 안데르센전의 이런 복합 문화적 측면은 어린이는 물론, 안데르센의 동화에 향수를 갖고 있는 40-50대 어른들까지 흡수할 수 있는 매력이 되고 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한국일보 전략기획실의 김대성 기자는 “어린이들은 디즈니의 <인어공주>는 알아도 안데르센은 누군지 잘 모른다. 안데르센에 향수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한다. 영상이 텍스트를 밀어내는 추세가 이런 전시에도 반영되는 것

같아 좀 씁쓸하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안데르센의 일대기는 ‘미운 오리새끼’ 였던 어린 시절의 불우함을 극복한 덴마크 최고의 성공담이다. 어린이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 ‘희망’을 잃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소박하지만 중요한 진실을 배워갔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덧붙였다.

안데르센전은 8월 15일까지 코엑스 장보고 홀에서 계속되고, 그 이후에는 장소를 이동해(미정) 12월 22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한

문의: (02) 6002-8700